

소품문 정신의 비판적 계승과 동양 미학의 시각 - 운오영에 대한 중국문학의 영향 -

서영빈*

1.

수필가 윤오영(尹五榮, 1907~1976)선생은 생전에 독특한 형식의 빼어난 수필작품들을 많이 남김으로써 한국의 현대 수필문학을 한층 빛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수필문학입문>>이란 저서를 통해 한국 수필문학의 이론정립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수필집으로 <<고독의 반추>>(1974, 관동출판사)와 <<방망이 깎던 노인>>(1976, 범우사)을 남겼으며 최근에는 선집형태의 <<꽃감과 수필>>(2000, 태학사)이 태학산문선의 한 권으로 나온 것이 있다. 본고는 태학사의 이 <<꽃감과 수필>>을 텍스트로 하여 윤오영의 수필세계를 점검하면서 그의 수필작품에 나타난 중국문학전통의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만의 독특한 문학세계와 수필사적 의의를 자리 매김해보려고 한다.

윤오영의 수필작품들을 읽어보면 수필에 대한 저자의 애착과 수필에 임하는 저자의 진지한 자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젊어서부터 수필에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다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의 수필작품들이 대부분 저자의 만년에 쓰여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문학수필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선각자적인 자각과 수필문학 수련을 위해 경주한 그의 각고의 노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다양하다. 서사 위주의 “달밤”이나 “소녀” 같은 작품도 있고 사경(寫景) 위주의 “밀물”, “내 고향” 같은 작품도 있으며 또 설리(說理) 위주의 “명분”, “백의(白衣)와 청송(靑松)의 변” 같은 작품도 있고 또 서정 위주의 “봄”, “소창(素窓)” 같은 작품도 있다. 또 서사와 서정, 사경과 설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방망이 깎던 노인”, “마고자”와 같은 작품도 있다. 작품의 구성 면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였는데 그 구성의 필요에 따라 작품의 길이도 “달밤” 처럼 2백자 원고지 5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백의와 청송의 변” 처럼 30매 이상 되는 것도 있다. 작품의 내용도 다양하여 인물, 사건, 동물, 소장품, 자연, 기호(嗜好) 등등이 모두 그의 작품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미일관 그의 수필세계를 관통하는 특징은 바로 전통적인 산문정신일 것이다. 그의 수필에 나타난 투철한 산문정신은 전통적인 소품문(小品文) 정신에 대한 비판적 계승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또한 소품문 정신에 뿌리를 둔 창신(創新)과 동양 고유의 미학적 시각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독특한 문학적 경지를 개척하였다.

본고는 윤오영의 수필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수필세계를 고찰하면서 그의 이러한 산문정신이 오늘의 우리 수필계에 시사하는 바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대의경제무역대학

2.

윤오영의 수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소품문(小品文)이다. <<꽃감과 수필>>이나 <<수필문학입문>>이나를 막론하고 그의 글 중에는 소품문에 대한 소개와 인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그가 명작수필의 전범으로 내세운 세 편의 수필이 모두 명(明), 청(淸)의 소품문인 것만 보더라도 소품문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

소품문은 중국의 신문학 운동시기 임어당(林語堂)이나 주작인(周作人)에 의해 널리 소개되고 제창된 하나의 장르인데 그 시초는 명대말기의 공안경릉파(公安竟陵派)에서 기원한다. 16세기말 원씨 삼 형제에 의하여 창시된 이 파는 성령파(性靈派)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성(性)은 개성을 의미하고 영(靈)은 사람의 혼 또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말로서 한마디로 자기의 개성과 품격을 표현하는 자기표현파라고 할 수 있다. 성령파의 소품문은 개인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고 있지만 역대 정통 문장가들에 의해서는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지껄이는” 보잘것없는 글로 취급되었었다. 그러나 신문학 운동의 물결과 더불어 소품문은 개성의 문학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이 시기에 다시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수많은 명말의 소품문이 주석본으로 출간되었고 드디어는 문장가들이 다투어 모방하는 범문(範文)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사상과 문학을 그 절대적 획일주의와 죽음에서 건져낸 것은 이러한 독창적인 작가들이었다(袁中郎, 金聖嘆, 李卓吾 등 성령파 작가들--- 필자 주). 이제부터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중국도 반드시 그들의 천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의 정통파문학은 분명히 성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지(主旨)로 하고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죽었다. 성령파문학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성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다.

임어당의 이러한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품문은 당시 중국 신문학 운동의 취지에 제일 잘 부응하는 하나의 문학형태로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 신문학 운동 중에서 산문은 이러한 전통적인 소품문의 성공적인 계승 발전에 힘입어 소설이나 시, 희곡에 비해 더욱 뚜렷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 산문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임어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품문파는 전통적인 소품문에 유머를 첨가하여 “자아를 중심으로 하고 한적(閑適)을 격조(格調)로 하는” 새로운 소품문의 품격(品格)을 형성하기에 이르고 노신(魯迅)을 중심으로 한 잡문파(雜文派)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내용을 신랄한 풍자에 담아 표현하는, 시사성과 혁명성이 짙은 “잡문”이라는 산문의 새로운 한 지류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윤오영이 중국 소품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마도 신문학 운동을 통해서였던 것 같다. 그의 작품들을 읽다보면 그가 노신의 산문이나 임어당의 산문에 대해 모두 익숙하게 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 있는 것은 그의 수필 중에는 임어당 식의 유럽풍 유머나 노신 식의 날카롭고 예

리하게 정곡을 찌르는 풍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어쩌면 당시의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입어당의 유머는 지나치게 한가하고 노신의 비판과 풍자는 지나치게 각박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자신의 체질(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품문의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장대(張岱)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명말의 문장가 장대는 소품문의 완성을 일구어낸 장본인이다. 장대의 수필 “민노자의 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운오영은 “깨끗하고 빈 구석이 없이 흐르는 문맥, 간결하고 긴박하면서도 깨끗하게 다듬어나가는 숨씨”를 극찬하면서도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환경과 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체의 특색은 우리에게 별 관심거리가 못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서고금의 성공한 문장들의 공통점으로 친숙하지 않은 생활 속의 소재, 일관된 문맥, 절제된 표현, 청신한 이미지, 함축과 여운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수필의 본보기로 명대말기의 소품문을 꼽으면서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구속됨이 없이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수필작품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의경(意境)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의경은 전통적인 중국의 문장론에서 주로 시에서 동경하던 하나의 경지이다. 사전적 해석으로 의경은 문학예술작품에 표현된 경지나 경계, 정취, 정서, 무드를 일컫는 말인데 글에서는 언유진이의무궁(言有尽而意無窮)의 경지를 말할 수 있다. 운오영이 장대의 글을 평하면서 절제, 함축, 여운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 의경을 이루게 된다.

예전에 최북(崔北)이라는 화가는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아니했다. 그 이유를 힐난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산 밖이 다 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의 옳고 그름은 내 아는 바 아니다. 그러나 오묘한 맛이란 항상 붓 밖에 있는 법이다.

붓 밖에 있는 오묘한 그 맛, 그것이 의경인 것이다.

운오영의 수필 중에서 의경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달밤”이다.

서사적인 내용으로 된 이 작품은 달밤에 일어난 아주 평범한 사건, 아니 사건이랄 것도 없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달밤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생면부지의 노인을 만나 술 한 잔 나누고 왔다는 것이 전부의 내용이다. 만나서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노인에게 어떤 비범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에게 극도로 응축된 한 폭의 담백한 정물화 소묘를 연상시킨다. 밝은 달빛, 고요한 밤, 큰 사발의 농주... 이러한 몽롱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 화폭 속의 색조나 선은 고도로 응축되고 절제되어 있지만 화폭 외에서 느껴지는 여운과 맛은 유장(悠長)하기 이를 데 없다.

운오영이 장대의 “민노자의 차”를 극찬하면서 “이 글이 어찌 차에만 한 글이겠는가.”고 할 때 우리는 “달밤”과 “민노자의 차” 사이의 동공이곡(同工異曲)의 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장대의 글은 분명히 전형적인 소품문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아취(雅趣)는 있을지언정 일상성이 없고 장대와 민노자는 있을지언정 시대와 사회의 현주소는 없다. 운오영의 “달밤”은 이런 의미에

서 소품문의 한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 거기에는 일상성의 쇄신이 있고 시(時)와 공(空)으로 짜여진 구체성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윤오영의 “달밤”이 소품문의 의경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탈속과 초월을 보여준 부분이다. 전통을 계승함에 있어서 맹목에 흐르면 겉모습만 빼어 닮은 모사신리(貌似神離)에 빠지게 되지만 “달밤”은 비판적 계승을 통하여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경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오영은 “내가 원하는 수필은 시로 쓴 철학이 아니면 소설로 쓴 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지가 바로 산문문학의 극치라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와 철학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철학과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입어당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생활의 발견>>이란 명저의 서문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한다.

이 책은 사상과 인생에 관한 나의 체험을 피력한 일개인의 증언이다. 이 책의 의도는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영구적 진리를 수립하려는 것도 아니다. 실인즉 <나>라는 사람은 철학의 객관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경멸하는 자다. 내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보다는 오히려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서정시적이라는 말을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이 책을 <서정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미명(美名)에 치우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어당이 말하는 철학은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요, 서정은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입어당의 서정철학과 윤오영의 시와 철학 사이에는 얼마나 먼 간격이 있는 것일까? 필자는 위에서 이야기한 윤오영의 시의 의경을 제외한다면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윤오영의 수필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으로서의 철학과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로서의 서정시적인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생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예술에서 미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석굴암의 돌부처는 황금이나 보옥이 아닌 화장석으로 된 것이지만, 황금 보옥으로 바꿀 수 없는 미를 가지고 있다. 모래와 흙으로 빚어진 고려의 청자나 이조의 백자는 또 얼마나 고귀한가. …신라의 금관은 순금으로 된 찬란한 공예품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금에 있지 않고 예술적 미에 있다.

미는 균형과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윤오영이 비록 소품문의 독창성과 개성을 높이 사고 있지만 이 글을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얼마나 동양적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가 수필론에서 이야기하는 파격과 창신은 어디까지나 동양의 전통적인 미학의 기틀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창신을 위한 창신, 파격을 위한 파격은 아닌 것이다.

윤오영의 아호 동매실주인(桐梅室主人)의 연유를 밝힌 “촌가의 사랑방”이란 수필을 보자.

오동나무는 천 년을 늙어도 늘 노래를 간직하고 桐千年老恒藏曲

매화는 일생토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梅一生寒不賣香

시구의 선택이 더욱 좋아 쓴 이의 인품을 들려주는 듯했다. 봐도 봐도 싫지 않은 글씨요, 읊어도 읊어도 다하지 않는 시구다. ...이조의 문화는 가난한 선비의 문화다. 빈한하고 검소한 생활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안목’이란 것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지성과 교양의 표현이요, 문식(文識)과 아취(雅趣)의 유로(流露)다.

운오영은 촌가의 사랑방 풍경과 이조의 안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이것을 통해 저자의 동양적인 안목과 선비적 기질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문여기인(文如其人),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학관이 오늘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번에는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로서의 서정시적인 요소가 운오영의 수필에서 어떻게 나타나있는가를 보도록 하자.

그는 진솔의 사람이다. 그는 진실과 유리된 붓을 희롱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새댁이 김장 삼십 번만 담그면 할머니가 되는 세월”을 탄식했다. 자기가 보고 느낀 세월이다.

이 글은 금아의 수필 “송년” 중에 나오는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다. 금아는 새댁이 김장 담그는 횟수로 그 빠름을 나타냈다. 신선하고 낯설며 주관적이고 해학적이다. 공자가 냇가에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아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자기만의 느낌, 자기만의 표현을 찾았던 것이다. 낯설게하기의 효과가 여기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운오영은 정확히 집어내어 “자기가 보고 느낀 세월”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수필이 객관적 또는 영구적 진리의 구명에 목적을 둔 글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과 느낌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때,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 아닌 이러한 개성적인 시각의 획득은 수필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 될 것이다.

술을 절개의 상징으로 사랑해 왔다고 하나, 절개가 나쁠 것도 없다. 그러나 반드시 비유나 이유를 따져서 좋다 그르다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술을 절개 때문에 사랑한다면 단풍은 변절 때문에 사랑하는가?

(나는) 다만 내가 보는 각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다. 혹자, 타당성과 정작을 잃은 일변의 편견이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바다. 내 붓은 어느 때나 자유로운 산책이다.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로서의 서정시적인 모습이 강하게 안겨오는 대목들이다.

그의 수필들을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의미의 부여가 늘 신선하다. “조약돌”, “사발시계”, “방망이 깎던 노인”, “소창”, “농촌”, “넥타이”, “마고자” ... 이러한 작품들에서 보여준 저자의 개성적이고 선비적인 안목은 실로 한국 현대 수필문학의 소중한 재산들이다. 물론 이 외에도 그의 수필은 탄탄한 구성, 절제된 표현, 자유자재로 능란하게 구사되는 문장의 호흡 등으로 현대 수필문학에 기여한 공이 참으로 크다.

3.

현대 수필문학의 발달과정을 이야기할 때 흔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수필, 그리고 몽테뉴와 베이컨과 찰스 램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 수필의 서구적 전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필창작에 그대로 반영된다.

윤오영은 중국의 산문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양의 소품문에서 한국 수필문학의 또 다른 한 갈래의 원류를 찾아내어 신선하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했다. 동양의 산문전통에 대한 언급은 물론 그가 첫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윤오영처럼 이론과 창작에 걸쳐 폭넓게 소품문의 정신을 제창한 사람은 일찍 없었다. 우리가 만약 김진섭의 수필을 가리켜 서구 지향적 성향이 짙은 작품이라고 한다면 윤오영의 수필에 대해서는 동양 지향적, 고전 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소품문 전통의 비판적 계승과 동양미학의 안목을 조화롭게 유지하여 새로운 경지의 수필들을 창작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수필문학이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수레바퀴를 찾을 수 있게 된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수필에 있어서의 동양 전통의 회복과 계승 면에서 윤오영은 한국 현대 수필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윤오영은 한국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문장을 높이 사면서 연암 문장의 진가는 “어느 글에서나 일관되어 흐르는 그의 산문정신에 있다”고 했다.

평소에 쌓인 온축과 박학이 완전히 융화되어 체질이 되고 생활이 되어 사물을 볼 때마다 자기의 독특한 리듬을 타고, 위트와 유머를 풍기며 퍼져, 혹은 풍자가 되고, 혹은 우화도 되며, 고비마다 새로운 기축(機軸)을 열되, 어느 때 어느 줄을 튕겨도 거문고는 거문고 소리, 비파는 비파 소리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산문정신의 가장 높은 경지다.

그러나 윤오영이야말로 전통적인 동양미학의 안목을 체질화하고 그것을 다시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우리 수필문학에 새로운 산문정신을 부여한 작가로서 손색없다. 그의 문학적 성과는 물론 “예민한 정서, 예리한 관찰력, 놀랄 만한 상상력, 그리고 기억력의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필적 성과가 오늘의 한국 수필문단에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그의 치열한 산문정신일 것으로 보인다. 전통을 따르되 창신을 꿈꾸고 창신을 꿈꾸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그의 이러한 산문정신은 오늘 한국 수필문단의 좋은 거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中文摘要】

小品文精神的批判继承与东方美学视角

—中国文学对尹五荣的影响—

随笔作家尹五荣(1907-1976)作为韩国极具代表性的现代散文家,在理论与实践两方面均为韩国随笔的发展做出了卓越贡献。贯穿于其随笔世界的最大特征当属传统的散文精神。其随笔所呈现出的通透的散文精神,在作家对传统小品文精神的批判性继承中很好地展示出来。不仅如此,他还通过将奠定小品文精神之根基的创新与东方固有的美学视角完美融合,开辟出了独特的文学境界。

小品文是中国新文化运动时期被林语堂和周作人广泛推介与提倡的一种文学体裁,其发展开端可以上溯至活跃于明朝末期的公安竟陵派。该派系于16世纪末由袁氏三兄弟所创立,又被称为性灵派。这里的‘性’意为个性,‘灵’意为人的灵魂或者生命力,因此性灵派可以说是彰显个体的个性与品格的自我表现派。性灵派的小品文所追求的最高境界是个人精神的表现,而这种主张却为历代传统文学家所不齿,认为这不过是随思想的跳跃无凭无据闲扯的行为。但是,随着新文化运动的热浪不断高涨,小品文这种彰显个性的文学被人们重新认识,并作为最符合新文化运动主旨的文学体裁得到迅速发展。在中国新文化运动的浪潮中,凭借对传统小品文的成功继承与发展,散文凌驾于小说、诗歌和戏剧之上取得了更为丰硕的文学成果。

尹五荣对中国小品文的关注也是源自于新文化运动。在阅读其作品的过程中,可以明确感知到尹五荣熟知鲁迅散文及其林语堂散文。然而有趣的是,在他的随笔中却无法找到林语堂式的欧洲风幽默或者鲁迅式的辛辣锐利的讽刺格调。或许,身处当时韩国的特殊环境中,在尹五荣的接收意识里,林语堂的幽默过于悠闲,而鲁迅的批判和讽刺过于刻薄。又或许是因为在他看来,林语堂与鲁迅的这些特点都与他自身的风格格格不入。沿着小品文的源流追溯而上,最终,理所当然地,尹五荣与张岱不期而遇。与明末小品文的集大成者张岱邂逅之后,尹五荣才终于汲取到中国散文精神的精髓。

本论文将以尹五荣随笔的以上特性为着眼点,通过考察其随笔世界,探究中国传统文学思想对韩国现代散文所产生的影响。

